

주요 내용

1.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개신교인의 전도 내용, '예수·하나님 소개'에서 '교회·예배 안내'로 변화 추세!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자존감 관련 국민 인식
- 2) 40대의 일자리 전망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개신교인의 전도 내용, ‘예수·하나님 소개’에서 ‘교회·예배 안내’로 변화 추세!

지난 호 ‘한국인의 종교 인식’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개신교에 대한 비개신교인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개신교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변 교인들의 언행'(30%)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목회자·교회 지도자들의 언행'(25%), '매스컴 보도'(18%) 순이었다. 이는 10년 전 조사 대비 매스컴의 영향은 줄어들고 교인과 목회자의 영향은 증가한 수치이다. 비개신교인은 주변 교인의 언행을 개신교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비개신교인이 전도 받은 경험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전도 받은 내용도 '예수·하나님 소개'에서 '교회·예배 안내'로 변화하고 있었다. 교회의 전도 행사가 다양해진 한편 개신교인의 신앙 약화로 직접적인 복음 제시가 어려워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넘버즈 207호>에서 다룬 개신교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변화 방향과 지향점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넘버즈 발행 목차

- ①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
- ②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 ③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 ④ 목회자의 목회 활동 실태
- ⑤ 목회자의 목회 인식 및 라이프스타일

*일정과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개신교인 조사	비개신교인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비개신교인
조사 지역	전국(Nationwide)	전국(Nationwide)
표본 규모	2,000명(유효표본)	1,0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표본 추출 방법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비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 2.2% (95% 신뢰구간) (무작위 추출 가정)	± 3.1% (95% 신뢰구간) (무작위 추출 가정)
조사 기간	2023년 01월 09일 ~ 16일(8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연구/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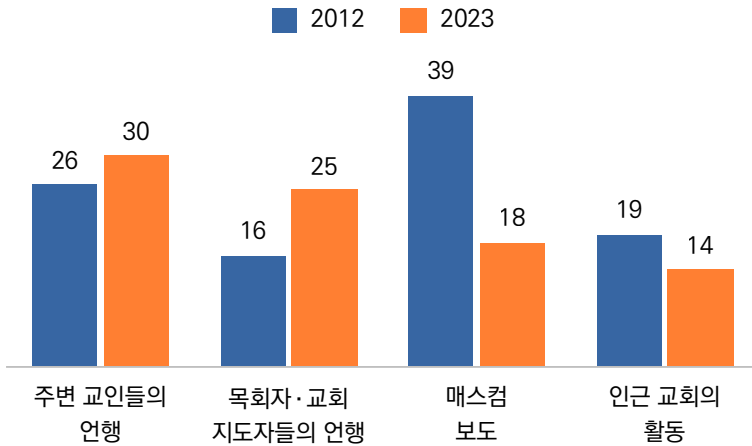
01

[개신교 이미지]

개신교 이미지, 주변 교인 언행이 목회자보다 더 영향 미쳐!

- ▶ 개신교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비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묻은 결과,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 30%로 1위였고, 다음으로 '목회자·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25%, '매스컴 보도' 18% 등의 순으로 교인의 언행이 목회자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10년 전 대비 매스컴의 영향은 줄어든 반면 교인과 목회자의 영향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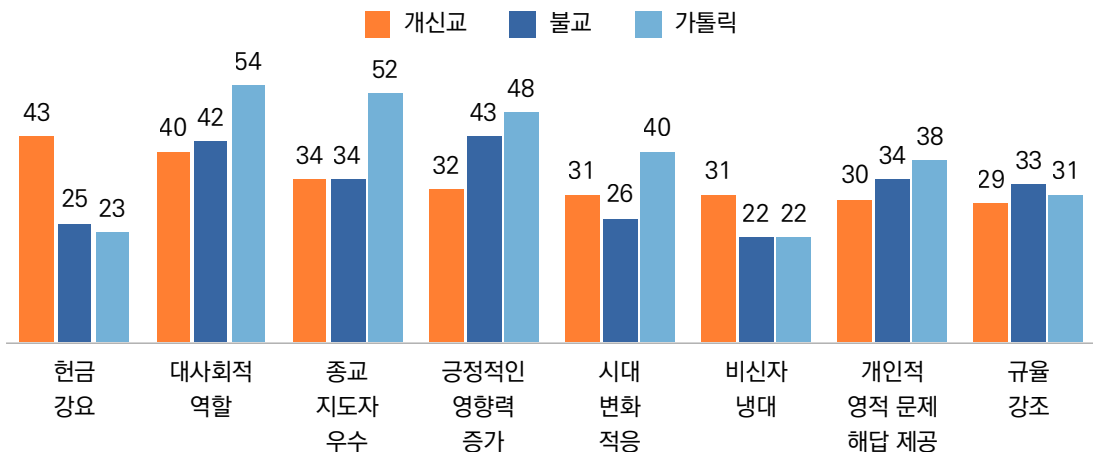
[그림] 개신교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비개신교인, 상위 4위, %)



◎ 개신교인, 타 종교인보다 자기 종교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

- ▶ 종교인별 자신의 종교에 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게끔 했다. 개신교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기 종교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종교인 중 자기 종교에 대해 가장 저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세 종교 중 가톨릭 교인이 자기 종교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그림] 종교인의 자기 종교 평가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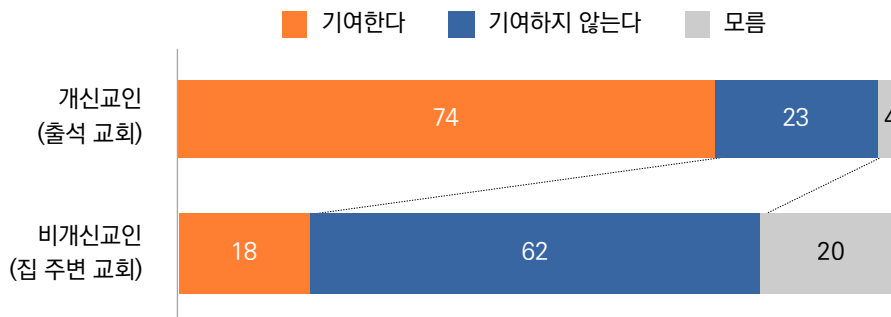
*5점 척도임

02

[한국교회 사회적 활동 평가] 교회의 사회적 기여,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차이 커!

- ▶ 집 주변 지역 교회(개신교인의 경우 출석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게 각각 물었다. 그 결과, 개신교인은 74%가 '기여한다'고 응답했고, 비개신교인의 경우 '기여하지 않는다'가 62%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 '지역사회 교회 기여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이와 같은 인식 차이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지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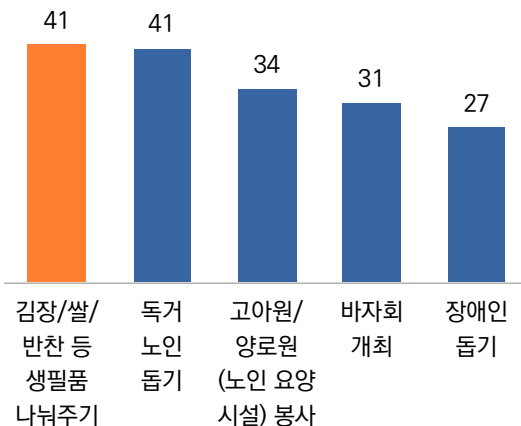
[그림]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기여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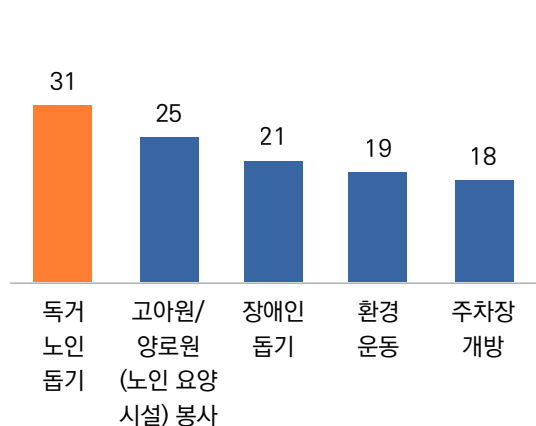
◎ 비개신교인이 원하는 교회의 사회봉사, '독거 노인 돕기'!

- ▶ 집 주변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비개신교인에게 어떤 봉사를 진행하는지 물었다. '김장/쌀/반찬 등 생필품 나눠주기'(41%)와 '독거노인 돕기'(41%)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아원/양로원 봉사', '바자회 개최' 등의 순이었다.
- ▶ 이와 동일한 항목을 제시하고 이번에는 집 주변 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해주면 좋을 것 같은 활동을 물은 결과, '독거노인 돕기', '고아원/양로원 봉사', '장애인 돕기'가 등의 순으로 '독거 노인 돕기' 요구가 가장 높았다.

[그림] 집 주변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봉사활동 (비개신교인 중 주변 교회 봉사 인지자, 중복응답, 상위 4위, %)



[그림] 집 주변 교회가 해주었으면 하는 봉사활동 (비개신교인, 1+2+3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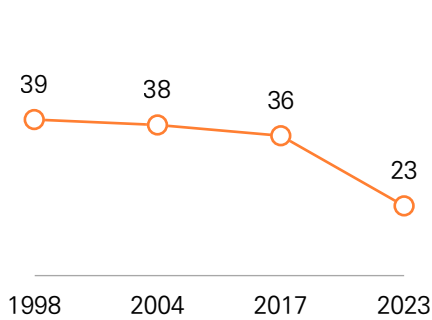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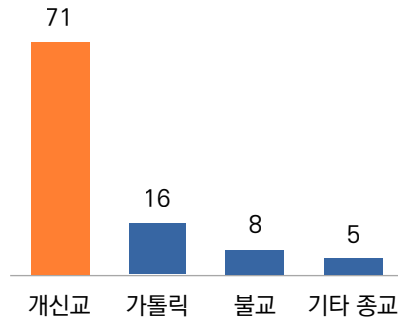
[비개신교인의 전도 받은 경험] 전도(포교) 받은 경험, 지속적 감소 추세!

- ▶ 비개신교인에게 지난 1년 사이 전도나 포교를 받은 경험 유무를 묻은 결과, 2023년 23%로 비개신교인 4명 중 1명 정도였다.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조사와 비교 시 13%p나 급감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전도나 포교 받은 경험이 있는 비개신교인에게 어느 종교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는지를 물었더니 '개신교'가 71%로 압도적 비율이었고, 다음으로 '가톨릭' 16%, '불교' 8% 등의 순이었다.

[그림] 지난 1년간 전도나 포교 받은 경험 (비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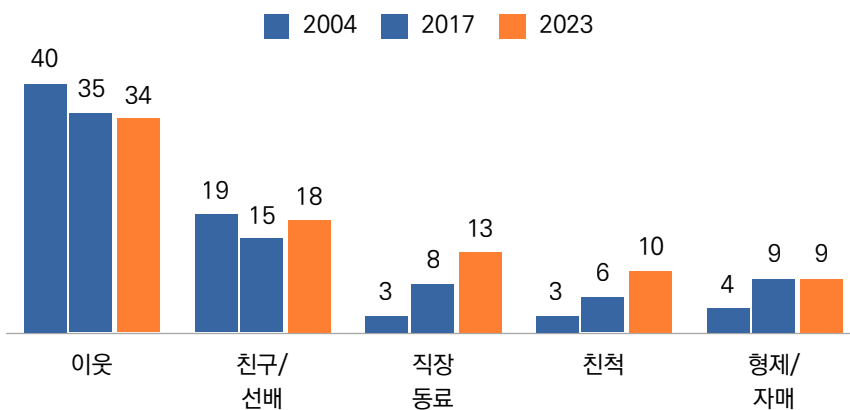
[그림] 전도나 포교 받은 종교 (비개신교인 중 전도/포교 받은 경험자, %)



◎ 개신교로 전도한 사람, '이웃'이 친인척이나 지인보다 많아!

- ▶ 개신교 전도 받은 경험자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개신교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이웃'을 꼽은 비율이 3명 중 1명 정도(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선배', '직장 동료', '친척' 등의 순이었다.
- ▶ 최근 20년 동안 '이웃'은 계속해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 되었으며, '직장 동료'와 '친척'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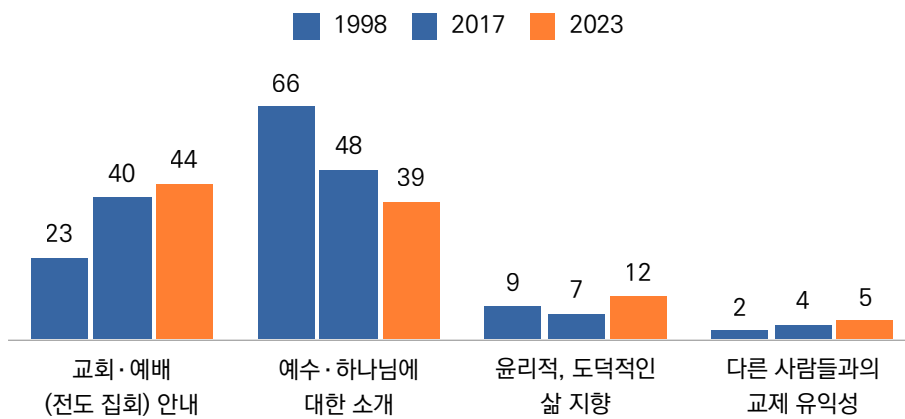
[그림] 가장 최근에 개신교 전도한 사람 (개신교 전도 받은 경험자, 상위 5위, %)



◎ 개신교인의 전도 내용, '예수·하나님 소개'에서 '교회·예배 안내'로 변화 추세!

- ▶ 개신교 전도를 받은 자의 전도 내용으로는 '교회·예배(전도 집회) 안내'가 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수·하나님에 대한 소개', '윤리적, 도덕적인 삶 지향' 등의 순이었다. 조사를 시작한 1998년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복음 전파'(예수, 하나님에 대한 소개 등)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2023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교회·예배(전도 집회) 안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과 행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다양해지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개신교인들의 신앙 약화로 인한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 또는 제시가 약화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개신교 전도 받은 내용 (개신교 전도 받은 경험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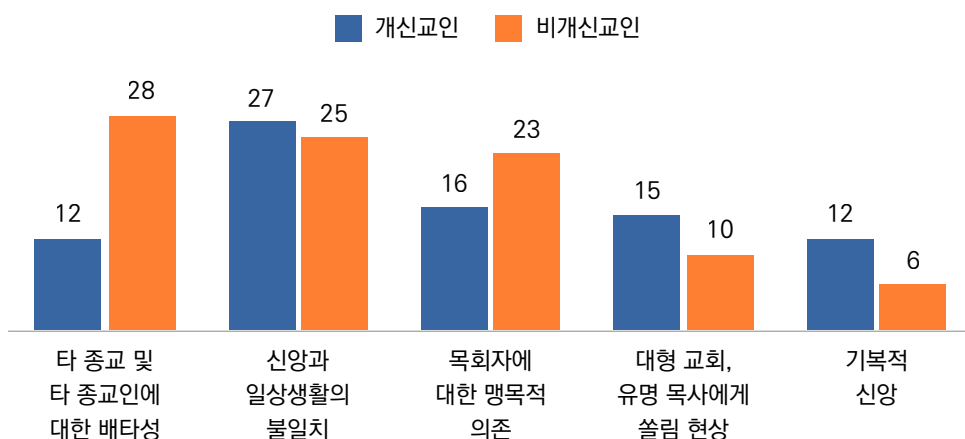


04

[한국교회 인식과 평가] 교회 신자의 문제점, 개신교인 스스로 '언행 불일치' 인정

- ▶ 앞서 비개신교인은 개신교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변 교인들의 언행'과 '목회자의 언행'을 절반 이상 꼽았다. 언행과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였는데 '한국교회 일반성도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개신교인 4명 중 1명(27%)이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를 꼽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비개신교인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도 역시 자신의 신앙과 일상생활 즉 삶, 언행의 불일치를 인정한 것이다.
- ▶ 비개신교인은 개신교인의 '타 종교·종교인에 대한 배타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개신교인과의 응답 비율 차이가 커서 이 또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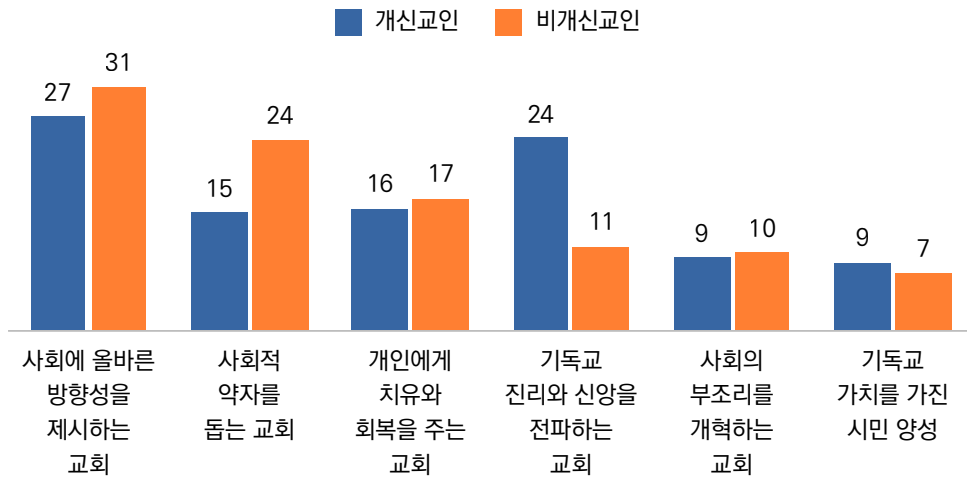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 일반성도의 문제점 (상위 5위, %)



◎ 비개신교인이 원하는 교회, ‘사회에 올바른 방향성 제시하는 교회’!

- ▶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은 무엇일까?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게 각각 질문한 결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사회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를 1위로 꼽았다.
- ▶ 2위 응답의 경우 개신교인은 ‘기독교 진리와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인 반면 비개신교인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를 꼽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비개신교인은 교회의 역할을 복음 전파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등 사회 봉사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DP2'라는 드라마를 개봉했다. 'DP2'는 탈영병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 병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악당으로 연기한 지진희 배우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등장한다. 그 외에도 개신교인을 비판적으로 등장시킨 드라마나 영화 사례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대중문화가 개신교를 기피 혐오 종교로 그리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제작자들은 대중의 이러한 감정을 건드림으로써 작품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상업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문화에서 개신교를 이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억울한 감정이 들고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조사 결과에서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와 개신교인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보니 대중문화의 개신교 묘사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만 하기 어렵다.

개신교가 이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비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 일반성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타 종교 및 타 종교인에 대한 배타성'(28%)과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25%)로 들었다. '사감과 섬김' 부설 코디연구소와 국민일보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서 2022년 4월에 발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의 대표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배타적'이었다.¹⁾ 우리는 기독교가 참 진리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믿는다. 기독교를 절대 진리로 믿으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신교인은 배타성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이 외적으로, 공격적으로 종종 발현되는데 이것이 비개신교인에게는 기독교인은 배타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배타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치명적 걸림돌이 된다. 그런 면에서 개신교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은 강고하게 붙잡고 있더라도 다른 종교인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른 종

교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교인 혹은 무종교인이 이번 분석 결과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기피하고 혐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기회조차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도덕성의 문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이다. 이번 분석에서 보면 개신교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개신교인들은 '주변 교인들의 언행'(30%)을 꼽았다. 일상에서 만나는 개신교인들의 언행 불일치의 모습이 개신교의 이미지를 더 많이 갇아먹고 있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개신교인의 이중적 행태는 개신교에 대한 단순 실망을 넘어서 사회적 비난을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교나 교육 등을 통해 형성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실제 생활에서도 통합하는 인식의 전환과 자기 이기주의 성향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실추된 이미지를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종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중요도가 낮아지고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진정성을 갖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소통하며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1) 국민일보, '기독교 배타적', 2022년 4월 27일

1.[자존감 관련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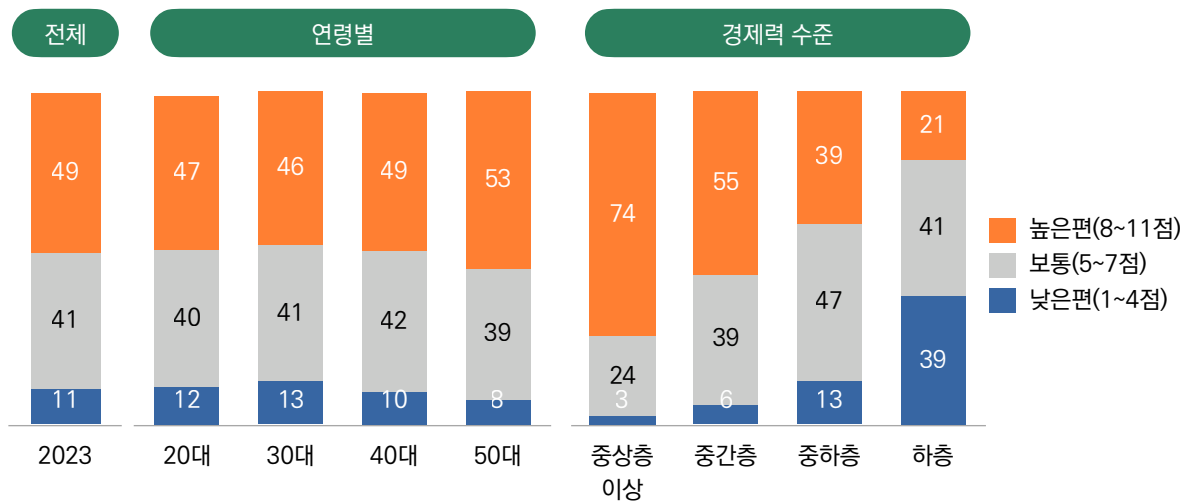
2.[40대의 일자리 전망]



우리 국민,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존감 높아!

- ▶ '자존감(自尊心)'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 가치를 갖춘 존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감정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인 '자존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 ▶ 최근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 결과, 현재 자존감 수준을 스스로 평가토록 한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는 자존감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자존감 수준은 자기가 인식하는 경제력 수준과 상관성을 보였다. 즉 자신의 경제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존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현 자존감 수준 평가**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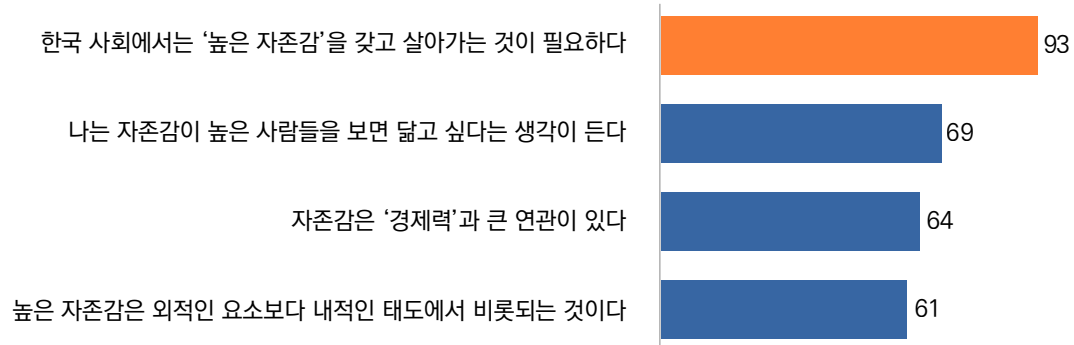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자존감 관련 인식 조사', 2023.08.30.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3.06.13.~06.16.)
 ** 11점 척도임

◎ 우리 국민 대다수, 한국 사회에서 '높은 자존감'이 필요하다!

- ▶ 실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묻은 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3%로 대다수였다.
- ▶ 또한 '자존감은 경제력과 큰 연관이 있다'와 '높은 자존감은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모두 60%대의 동의율을 보였다. '경제력'이라는 외적 요소와 '내적인 태도'는 상반된 개념이지만 두 결과 모두 비슷하게 응답됐는데, '경제력', '내적인 태도' 모두 자존감과 연관이 있다는 결론이다.

[그림] 자존감 관련 인식 (일반국민,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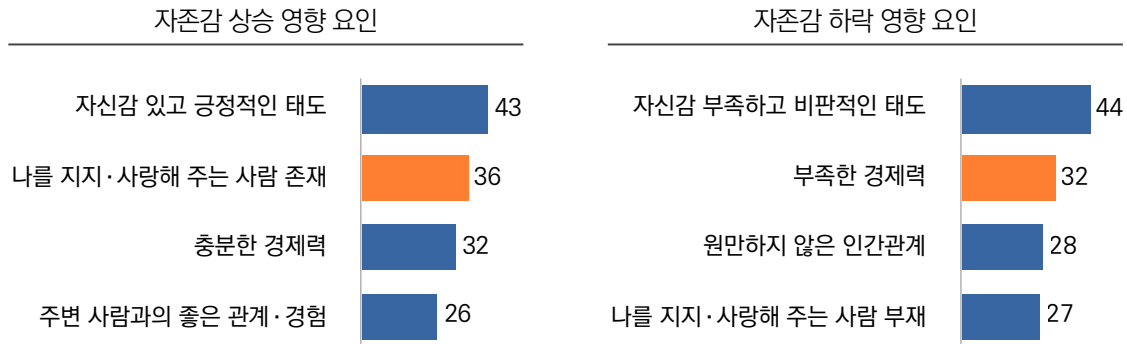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자존감 관련 인식 조사', 2023.08.30.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3.06.13.~06.16.)

◎ 나를 지지·사랑해 주는 사람의 존재, 자존감 상승에 영향 미쳐 36%

- ▶ 자존감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각각을 물은 결과, 자존감 상승 영향 요인으로는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태도'(43%), 자존감 하락 영향 요인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비판적인 태도'(44%)가 각각 1위로 꼽혔다.
- ▶ 그 외 상승 요인으로 '나를 지지·사랑해 주는 사람 존재'와 '충분한 경제력'이 뒤를 이었고, 하락 요인은 '부족한 경제력'이 32%로 2위를 차지했다. 자존감 영향 요인은 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적, 경제적 측면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자존감에 영향 미치는 요소 (일반국민, 중복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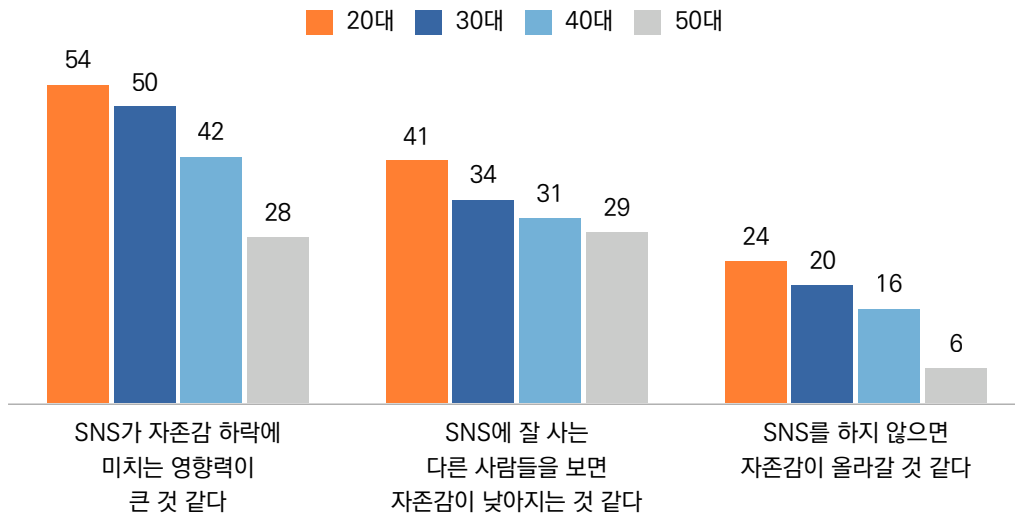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자존감 관련 인식 조사', 2023.08.30.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3.06.13.~06.16.)

◎ SNS로 인한 자존감 하락,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 ▶ SNS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동의율을 물어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SNS가 자존감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SNS가 자존감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 같다'에 절반 이상(54%)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SNS에 잘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다'에는 41%가 동의해 SNS상 타인과의 비교가 자존감 하락 요인으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그림] SNS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 (일반국민,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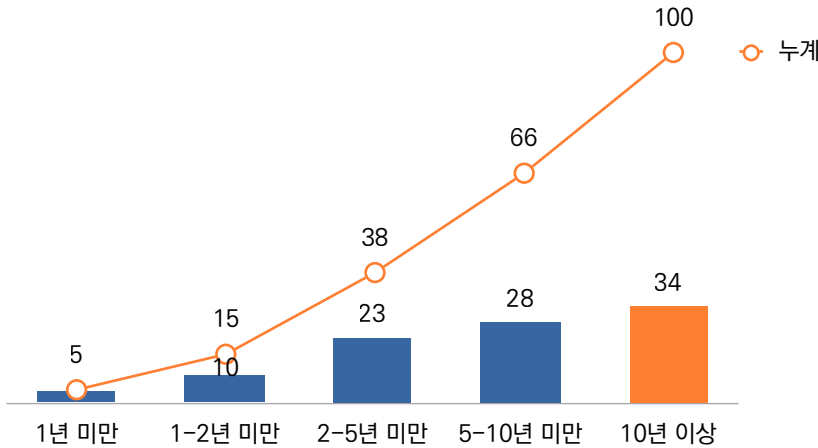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자존감 관련 인식 조사', 2023.08.30.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3.06.13.~06.16.)



40대 경제활동 시민 3명 중 1명만 현 직장에서 '향후 10년 이상 일할 수 있을 것!'

- ▶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40대는 앞으로 현재 직장(일자리)에서 얼마나 일할 것이라 기대할까? 서울시에서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 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비율은 34%였고, 나머지 66%는 10년 안에 현재 직장을 정리하고, 이직 또는 경력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앞으로 현재 직장(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서울시 40대 경제활동 시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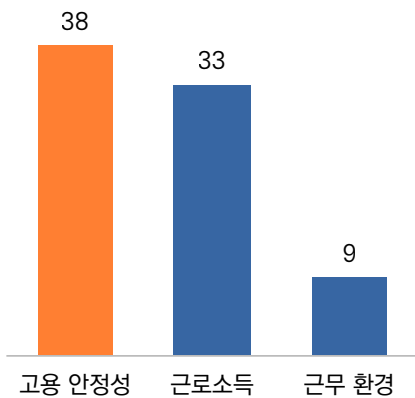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40대 시민 대상 직업역량 개발 요구조사 실시' 보도자료, 2023.07.13.(경제 활동 중인 서울시 40대 시민 1,248명 대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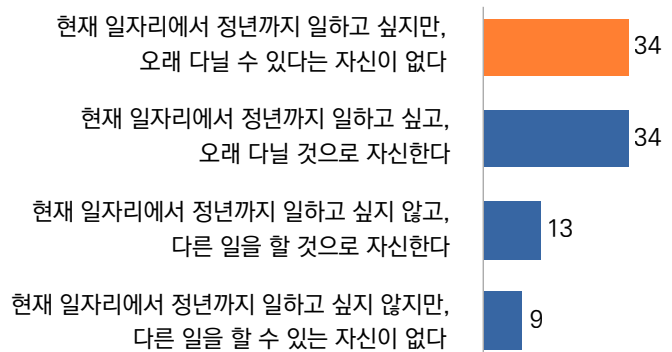
◎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 40대 직장인 34%만 '그렇다!'

- ▶ 직장 생활의 주요 요인, 즉 고용 안정성, 근로소득, 근무 환경 등의 요인들을 제시한 후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고용 안정성'이 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근로소득' 33%, '근무 환경' 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 금액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더 크게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제활동을 하는 40대가 체감하는 현재 일자리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현재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싶지만, 오래 다닐 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는 응답은 34%, '현재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싶고, 오래 다닐 것으로 자신한다'는 의견도 34%였다. 현재 40대 직장인 3명 중 2명 이상(68%)은 중년까지 현재 일자리에서 일하길 원하는데, 그 중 절반은 '오래 다닐 자신이 없다'는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직장(일자리)에 대해 중시하는 가치 (서울시 40대 경제활동 시민, 상위 3위, %)



[그림] 현재 일자리 전망 인식 (서울시 40대 경제활동 시민, 상위 4위, %)



*자료 출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40대 시민 대상 직업역량 개발 요구조사 실시' 보도자료, 2023.07.13.(경제 활동 중인 서울시 40대 시민 1,248명 대상 조사)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57호 \(2023년 9월 1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내년 총선 결과 기대,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등

[‘단식’ 이재명, 차기 대선 선두이기는 한데...1년여만에 10%대, 한동훈과 차이 줄어](#)

문화일보_2023.09.08.

◎ 사회 일반

["교사 10명중 4명은 심한 우울 증상...6명중 1명 극단선택 생각"](#)

연합뉴스_2023.09.05.

[열심히 일하면 잘살까...한국인 16%만 '그렇다' 세계 꼴찌권](#)

연합뉴스_2023.09.07.

[여성 고용률 60% 첫 진입...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한겨레_2023.09.06.

["여성긴급전화 상담, 스토킹 6배 늘고 가정폭력·성매매 줄어"](#)

연합뉴스_2023.09.08.

[630만명 해외행, 103만명 한국행...점점 더 커지는 '여행수지 적자'](#)

JTBC_2023.09.08.

[아사히맥주 품질사태, 너도나도 일본여행...MZ는 '에스재팬'](#)

한국경제_2023.09.06.

[조선 시대 출산은 어떠했을까?...양반 여성 1명당 평균 5.09명 출산](#)

문화일보_2023.09.06.

[작년 명품 가방 수입액 8천억원 육박...4년 새 258% 늘어](#)

연합뉴스_2023.09.09.

[모유 수유율 34%, 10년 새 반토막](#)

조선일보_2023.09.06.

["공과금만 내요" 非친족 가구 50만...피 안 섞인 그들 사는 법](#)

중앙일보_2023.09.08.

[디지털 정보 격차 및 챗GPT 상용화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_2023.09.06.

["키오스크 놓은 게, 식당 20년에 가장 잘한 일"](#)

중앙일보_2023.09.06.

◎ 아동 / 청소년 / 청년

[불행해하는 어린이 크게 늘었다...아동 4명중 1명 "불행해"](#)

연합뉴스_2023.09.0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어린이 우울증 5년새 갑절로...5년간 초중고생 822명 극단선택](#)

연합뉴스_2023.09.07.

[4년새 학생 수 82만명 줄었는데 학원은 3만개 늘었다](#)

중앙일보_2023.09.06.

◎ 기업 / 경제

[韓 직장인 재택근무 월 1.6일...34개국 중 최하위](#)

연합뉴스_2023.09.05.

[팬데믹 이후 성장 반등폭 살펴보니...한국 5.9%·미국 6.1%](#)

연합뉴스_2023.09.11.

["비정규직 여성 5명 중 2명 성희롱 경험"](#)

연합뉴스_2023.09.03.

[공무원연금 月 268만원씩 받는다...국민연금의 5배](#)

한국경제_2023.09.10.

[고금리 희생양? 무계획의 업보?...빚덩이 20대, "쉬운 대출이 문제"](#)

중앙일보_2023.09.06.

[중기 절반 "추석상여금 지급"...44만7천원 또는 기본급 54%](#)

한겨레_2023.09.10.

["회사 몰래 받는 '제2의 월급' 달달하네"...직장인 몰리는 '이것'](#)

매일경제_2023.09.10.

[가치관 맞으면 '좋좋소' 아니라지만...MZ세대 중소기업 정말 괜찮나요?](#)

매일경제_2023.09.10.

◎ 국제

[저출산에 '신입생 정원 미달' 일본 사립대 첫 50% 돌파](#)

연합뉴스_2023.08.31.

[뉴욕 금융회사 CEO도 바이든에 'SOS'..."이민자 문제 심각하다"](#)

연합뉴스_2023.08.30.

◎ 건강

[50대 미만 암 환자 30년새 79% 폭증, 사망 1위 癌은?](#)

조선일보_2023.09.06.

["건강검진 과잉...증상없으면 갑상선초음파·폐CT 안해도 돼"](#)

연합뉴스_2023.09.07.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심뇌혈관 질환 최대 위험요인은 고혈압...고지혈증도 위험"](#)

[연합뉴스_2023.08.30.](#)

[치매 예방을 위한 세 가지 수칙 '3권\(勸\), 3금\(禁\), 3행\(行\)'](#)

[여성조선_2023.09.10.](#)

◎ **기독교 / 종교**

[2030 종교인의 60%가 개신교인... 10년 뒤엔 '뚝'](#)

[더미션\(국민일보\)_2023.09.11.](#)

[한국교회지도자센터 '제 18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

[더미션\(국민일보\)_2023.09.12.](#)

◎ **기획기사 : 발달장애인의 출근길, (연합뉴스)**

[1. "년 못할거야"라는 편견...제가 만든 커피에 바뀌어요" _2023.09.08.](#)

[2. "채용하느니 부담금 낸다"...상반기 징수금만 7천794억 _2023.09.09.](#)

[3. '일하는 장애인'...특별한 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_2023.09.10.](#)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연구소 소식.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출판 기념회 및 구입 안내 |

작년에 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은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한국 교회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로 교계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됩니다. 아래와 같이 출판 기념회에 넘버즈 구독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23년 9월 26일(화) 10:00 ~ 11:30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프로그램 : 기념회 및 주요 내용 발표, 기자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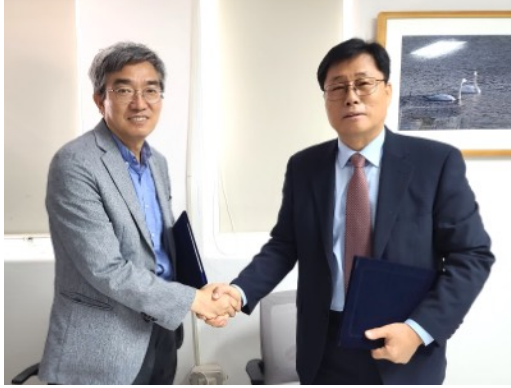
참석 신청(선착순 100명)

책 구입 안내

| 연구소 소식. 2 |

우리 연구소는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2023.09.05)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2023.09.07)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각 선교 현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